

광주천 외래식물과의 ‘여름 전쟁’

광주환경공단·환경연 50명

가시박·도깨비가지 등

하류 7km 구간 제거 활동

광주시가 애써 가꾼 광주천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식물과 한바탕 ‘여름 전쟁’을 치른다. 워낙 번식력이 좋아 유입 초기에 제거해야 하고, 열매가 맺히기 전인 7~8월이 제거 적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광주천 외래식물 제거 작업은 아직 외래식물이 넓게 퍼지지 않았다는 판단 탓에 환경단체의 재능기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래식물의 번식력을 고려했을 때 발견 초기에 지속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한 번 퍼진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데 더욱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은 18일 광주천 하류 7km 구간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활동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환경공단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의 임직원들을 비롯하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광주생명의숲 국민운동의 회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해 광주천 하류에 분포하고 있는 외래식물을 제거했다.

가시박, 도깨비가지와 같은 외래식물은 번식력이 강해 토종 생태계를 잠식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09년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 식물로 지정된 가시박은 2013년 광주



광주시와 광주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8일 광주천 하류에서 최근 퍼지고 있는 가시박 등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 제공〉

천에 처음 등장해 각종 토종 식물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으로 1년에 4~8m 자란다. 잎이 3~4개로 갈라진 덩굴손으로 다른 물체를 감아 기어오르는 특성이 있어 밑에 있는 식물체의 햇빛을 막아 말라죽게 한다.

열매에는 날카롭고 가느다란 가시가 촘촘하게 붙어 있어 사람과 가축에 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피해를 준다. 하천변이나 제방에 발생한 가시박은 어릴 때(5월 중순~6월 하순) 낫 등으로 제거해야만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가시박은 한 번 제거했다 하더라도 6월 말까지 계속 발생하기 때

에 발생할 때마다 제거해야 한다.

또 사람에게는 알레르기성 비염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공단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9월 초 꽃이 피고 열매가 퍼지기 전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해 이와 같이 구슬땀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이 북아메리카인 이 식물은 도깨비가지는 1978년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뒤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전국에 분포하는 ‘귀화 식물’로 자리잡았다. 이 과정에서 달갑지 않은 ‘감투’도 받았다.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생태계 교란 생

물로 지정된 것. 번식력이 지나치게 뛰어나 자생식물들의 삶터까지 침입해 생육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광주환경공단 안용훈 이사장은 “외래식물은 번식력이 강해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점차 확산돼 생태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생태계 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제거 작업을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함께 꾸준히 실시하여 광주천에 건강한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모

임기 2년...27일까지 접수

(사)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이하 ‘센터’)가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한다.

대표이사 응모자격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도시재생 및 공동체 관련 활동 경력이 있고, 비전과 목표 제시 역량, 공공법인 경영 능력을 갖춘 자이며, 센터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27일까지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표이사 응모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

사를 거쳐, 최종후보자를 이사장(시장)에게 복수로 추천하면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역공동체추진단(062-613-6232)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과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사)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지난 6월12일 창립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광주광역시장과 시의회 추천 2명, 센터 이사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소외계층 아동 여름방학 급식카드 제공

광주시는 돌봄이웃 아동 1만6716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8월31일까지 급식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급식지원자 중 계속 지원 대상자와 올해 급식 신청자 등 총 1만 6716명에게 급식제공 기관 1106곳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저소득층이주지원대상자,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 부재가구, 보호자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인한

긴급보호필요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인 맞벌이 가구, 그 외 교사나 동 담당 공무원, 학교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가맹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식당 796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등 4곳, 지역아동센터 306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1일 국회서 5·18 학술토론회

30년 만의 헌법 개정 국면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인권보장의 헌법규범화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5·18진실규명과역사외국대체위원회’ 주최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은 한동대학교 이국은 교수 발표와 전북대학교 송기춘 교수 토론으로 ‘87년 헌법제정 평가를 통해 현행 헌법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

을 나누고, 2세션은 전남대학교 민병로 교수 발표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영재 박사 토론으로 ‘5·18민주화운동 미해결 과제와 방향 및 5·18정신의 헌법규범화’를 논의한다.

이어 3세션은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의 발표와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의 토론으로 ‘인권보장의 헌법규범화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는 8월말~9월말 까지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

세계청년축제 서포터즈 ‘비타민’ UCC·캠페인 홍보 특특

다음 달 4~6일 개최

청년들이 기획하고 즐기는 문화의 장인 ‘2017세계청년축제’의 서포터즈 ‘비타민’이 시민들과 함께 즐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광주시는 18일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35명의 ‘비타민’이 청년축제 현장과 밖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타민’은 청년축제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홍보부터 시작했다. 온라인 홍보를 위해 올해 슬로건인 ‘청년은 한다(Youth Do It)’라는 주제를 반영한 15초 분량의 홍보 UCC ‘청년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약한다’, ‘청년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다’, ‘청년은 열정이 불 타 오른다’, ‘청년은 고민을 한다’ 등 35개를 제작했다.

이들 UCC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 반복되는 도전을 하는 모습,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일상, 과감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동구에 위치한 청년 운영 공간인 ‘동네쑤민’에서 2017세계청년축제 서포터즈 ‘비타민’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사전 홍보 등 주요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 제공>

히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모습 등 35편의 각기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광

주시는 청년축제 D-35인 6월30일부터 매일 1편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wy-

outhfestival) 등 온라인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광주 곳곳을 찾아 축제를 알리는 사전 홍보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7일 유스퀘어 광장을 시작으로 14일에는 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축제를 알렸다. 21일과 26일에는 중장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을 중심으로 깜짝 이벤트와 공연으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제 프로그램으로 무더위를 날릴 게임형 콘서트 ‘청춘 썸머 놀이터’를 기획하고 비타민 마블(대형 보드게임), 물풍선 받기, 비타민을 이겨라(물총 게임), 코스프레 비타민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7세계청년축제는 오는 8월4일부터 6일까지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청년은 한다(Youth Do It)’라는 주제로 공연, 강연, 체험, 전시 등 청년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의 장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급 매”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신안다리 옆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즉시 입주가능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 - 1억 3천만원
- 매매 - 1억 5백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나주,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